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서신애

정기 간행물 구로 라 00095

손 현 섭 편집

제514호

2024년 7월

성령의 인도하심	손 현 섭	2
신약성서 번역본(행 1:1-11)	전 준 덕	3
에베소서 읽기(3)	손 현 섭	19
이사야서 공부	최 정 일	26
겸손한 자의 평안	한 정 주	41
여호사밧왕과 아하시아왕	조 규 철	48
누가복음 강해(81)	권 태 주 역	53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 나 리	60
구원	최 제 현	62
이런 일 저런 일	편 집 실	71

성서신애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아니면, 누가 내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본 적도 없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보겠는가?
또 누가 나에게 성서가 하나님의 책이라 가르쳐 주는가?
나 자신, 내 가족, 육의 일, 땅의 일만 바라던 나를
하늘의 일에 마음두게 하는 이 누구인가?

아내가 쓰카모토(塚本 虎二) 선생의 사도신경 강의 중 ‘성령을 믿사오며’를 읽고 전해준 글이다. 그렇다. 정말 성령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육의 일, 땅의 일에 마음을 쏟아 제멋대로 살았음에 틀림없다.

게다가 나는 젊은 시절,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야마는 불같은 성격이었다. 그래서 남자답다거나, 용기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부끄럽게도 그걸 은근히 자랑스러워했었다. 참 겸손이라고는 한 점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좌충우돌 무식하게 덤비며 살았던 나를, 이 나이까지 그리스도인의 대열로 몰고 가시느라 성령님도 참 힘드셨을 것이다. 그렇다고 앞으로 갑자기 겸손한 사람이 될 리도 만무하니, 그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다.

요즘 우리 집 가정집회에서는 세 살과 다섯 살 두 손자가 서로 먼저 예배 기도를 하겠다 하고, 찬송도 누가 더 크게 부르나 시샘이 대단하다. 기도를 들으면 그야말로 어이없어 웃음이 나지만, 아이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도록 성령이 함께 해주소서’ 하고 마음이 간절해진다. 나 같은 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니, 이 아이들도 이끌어 주실 거라 굳게 믿는다(손현섭).

신약성서 번역본

(사도행전 1:1-11)

전 준 덕

<참고 사항>

1. 공관복음 요한복음의 4복음서는 대동소이한 관계로 꺾충 뛰어넘어 사도행전 사역으로 들어간다.
2. 사본의 밑줄 친 부분은 Stephens 판에 기록된 것이며, Nestle Aland 에는 누락된 것임
3. 또 사본의 괄호 안의 낱말은 Nestle판의 변경된 낱말임
4. 사역의 괄호안의 타 낱말은 사역자가 자신의 사역의 흐름을 좀 더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 임의대로 주입시킨 부분이다. 독자들은 이 부분을 넘겨 읽어도 무방함
5. 사본대로 사역한 관계로 다소 원만치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밝힌다.
6. 고유명사는 사본에 기록된 대로 사역함을 밝힌다.
7. 고유명사를 제외한 모든 낱말의 처음 나온 것은 사역 밑에 주) 1,2,3... 등으로 풀이해 기재하였다. 참고 바람
8. 한 낱말이(예 : ἀγάπω) 두 번 이상 나올시 가능한 피했다. 이 점을 양해 바란다.
9. 약자는 예로 접(접속사), 전(전치사), 부(부사), 명(명사), 중(중간태), 수(수동태), 인.대(인칭대명사) 등으로 알아두자

(ΠΡΑΞΕΙΣ)

주) 1. πράξεις : πράξις(행동, 활동, 작용, 사업, 직무, 행적, 활약, 행위, 행한 일, 실천)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복수, 대격

1장 1절 : ΤΟΝ μὲν πρῶτον λόγον ἐποίησάμην περὶ πάντων, ὃς Θ
εόφιλε, ὧν ἤρξατο ὁ Ἰησοῦς ποιεῖν τε καὶ διδάσκειν,

사역 : 오! 데오필로스여, 제가 처음 말씀을, 곧 예수스님께서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을 시작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주) 1. τόν : ὁ(관) (그)의 남, 단, 대격.

2. μὲν : (δέ와 함께 쓰인 접) (불변사) : (한편~또 한편, 사실~이지만,
그러나)

3. πρῶτον : πρῶτος(첫째, 첫 번, 처음, 먼저, 제일의, (지위나 계급) :
 으뜸 되는, 제일 높음, 가장 훌륭한)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단,
대격.

4. λόγον : λόγος(말, 말씀, 연설, 교훈, 보고, 자시, 선언, 명령, 예언,
설교, 기도, 질문, 이야기, 격언, 모습, 모양, 주제, 동기, 이성, 사건, 일,
계산, 셈, 청산, 이유, 주장, 도(道))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5. ἐποίησάμην : ποιέω(단축동사) (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창조하다,
이루다, 일으키다, 완수하다, 행하다, 시행하다, 내다, 하게 하다, 준비하
다, 지키다, 실천하다, 행사하다, 맺다, 산출하다, 실행하다, 범하다, 준수
하다, 얻다, 짓다, 가지다, 지내다, 일하다, 생각하다, 활동하다, 행동하다,
성취하다, 따라가다, 상상하다, 나아가다, (중) 자신을 위하여 ~을 하다,
만들다, 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 직, 단, 1인칭.

6. περί(전) (소유격 지배) : (~관하여, 대하여, 때문에, 위하여, ~의 처
지, 입장, 상태)

7. πάντων : πᾶς(매, 각, 온갖, 모든 종류의, 전체, 다, 모두, 완전한,
어떤 것이나 다, 아무것이거나 다)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여,중)의 복,
소유격(본절은 중성).

8. ὦ(감탄사) : 오!

ἔ : εἰμί : (나는 ~이다, 존재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가정, 단, 1인칭(본절은 감탄사).

9. Θεόφιλε : Θεοφιλος(θεός+φίλος의 합성어) (고유명) : (하나님이 사랑하신다)의 단, 호격.

10. ὤν : ὄς(관계, 대) (그, 그녀, 그것)의 복, 소유격.

11. ἤρξατο : ἄρχω(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중) 시작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 직, 단, 3인칭.

12. ὁ(관) : (남, 단, 주격) 1번 참조

13. Ἰησοῦς(고유, 명) : (예수)의 단, 주격.

14. ποιεῖν : ποιέω(5번 참조)의 현, 능, 부정사. (1:1)

15. τε(τέ) (후치사 및 불변) : (단독으로 사용시 : 그리고, ~와, 또, ~과)(τε καὶ, τε ~κάι : 같은 종류나 반대되는 개념을 연결시켜서 : ~과~을, ~과~의)

* ποιεῖν τε καὶ διδάσκειν : 행하시는 것과 가르치신 것을, 의 숙어.

16. καί(접) : (그리고, ~과, ~와, 그래서, 그리하면, 그래도, 그런데, 그러나,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17. διδάσκειν : διδάσκω(가르치다, 교수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 부정사.

2절 : ἄχρι ἧς ἡμέρας ἐντειλάμενος 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 διὰ πνεύματος ἁγίου οὗς ἐξελέξατο, ἀνελήφθη·

사역 : 그것은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부하신 후 승천하신 날까지입니다.

주) 1. ἄχρι(ἄχρις와 같음)(부) : (까지, 동안)

2. ἡς : ὅς의 여성, 단수, 소유격. (1:1)
3. ἡμέρας : ἡμέρα(하루, 날)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과 복, 대격(본절은 단, 소유격).
4. ἐντειλάμενος : ἐντέλλομαι(έν+τέλλομαι의 합성동사) (명령하다, 당부하다)라는 dep동사의 제1과 중간, 분사, 남, 단, 주격.
5. τοῖς(관) : ὁ의 남, 복, 여격. (1:1)
6. ἀποστόλοις : ἀπόστολος(사신, 사절, 대표, 대의원, 사자, 사도)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여격.
7. διὰ(전) (소유격 지배) : (통하여, 거쳐서, 널리, 두루, 언제나, ~동안, 말미암아, 안에, 후에)
8. πνεύματος : πνεῦμα(바람, 기운, 호흡, 숨, 목숨, 생명, 영혼, 영, 귀신, 성령, 유령, 성질, 기질, 의향, 은사)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소유격.
9. ἀγίου : ἅγιος(거룩한, 순결한, 순수한, 봉헌된, 완전한 (복) ἅγιοι : 성도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성(중성), 단, 소유격(본절은 중성 형용사).
10. οὗς : ὅς의 남, 복, 대격. (1:1)
11. ἐξελέξατο : ἐκλέγω(έκ+λέγω의 합성동사) (선택하다, 택하다, 고르다, 뽑다)라는 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12. ἀνελήφθη : ἀναλαμβάνω(ἀνά+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 (들어 올리다, 데리고 가다, 함께 가다, 취하다, 가져가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3절 : οἷς καὶ παρέστησεν ἑαυτὸν ζῶντα μετὰ τὸ παθεῖν αὐτόν, ἐν πολλοῖς τεκμηρίοις, δι' ἡμερῶν τεσσαράκοντα(τεσσεράκοντα) ὁ πτανόμενος αὐτοῖς, καὶ λέγων τὰ περὶ τῆς βασιλείας τοῦ θεοῦ.

사역 : 그리고 그분은 고난 받으신 후 살아계신 자신을 사도들에게 나타내셨고, 많은 확증 가운데서 사십 일 동안 저들에게 보여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여러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1. οἶς : ὅς의 남성(중성), 복, 여격. (1:1)

2. παρέστησεν : παρίστημι(παρά+ἵστημι의 합성동사) (옆에 놓다, 맡기다, 바치다, 제공하다, 나타내다, 보이다, 알리다, 밝히다, 만들다, ~되게 하다, 앞세우다, 앞에 끌어내다, 증명하다, (자)(중) 나서다, 오다, 가까이 가다, 돕다, 도우러 오다, 편을 들다, 옆에서다, (완료, 관거완) : 곁에서 있다, 가까이 서 있다.)라는 ~μι 동사의 제1과, 능동태, 직설법, 단수, 3인칭.

3. ἑαυτόν : ἑαυτοῦ(재귀, 대, 3인칭) (그 자신의, 그녀 자신의)의 남, 단, 대격.

4. ζῶντα : ζάω(단축 동사)(살다, 살아 있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단, 대격.

5. μετά(전) (대격 지배) : (뒤에, 후에)

6. τό : ὅ의 중, 단,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1:1)

7. παθεῖν : πάσχω(겪다, 당하다, 고난받다, 견디다, 경험하다, 죽음을 겪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부정사.

8. αὐτόν : αὐτός(인칭, 대) (3인칭) (그, 그녀, 그것)의 남, 단, 대격.

9. ἐν(전) (여격 지배) : (안에, ~가운데, ~중에, 가까이에, 위에, ~에게, ~에서, ~으로 말미암아)

10. πολλοῖς : πολός(많은, 큰, 오랜, 넓은, 깊은, 심한, 강한, 맹렬한, 심각한, 굉장한, 대다수, 대개, 다수)의 제3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 복, 여격.

11. τεκμηρίους : τεκμήριον(확실한 증거, 거짓말할 수 없는 물증, 움직

일 수 없는 확증)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복, 여격.

12. ἡμερῶν : ἡμέρα의 복, 소유격. (1:2)

13. τεσσαράκοντα : (사십, 40)

14. ὅπτανόμενος : ὀπτάνομαι(나타나다, 보이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분, 남, 단, 주격.

15. αὐτοῖς : αὐτός의 남(중), 복, 여격(본질은 남성). (1:3)

16. λέγων : λέγω(말하다, 묻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주장하다, 언명하다, 보고하다, 부르다, 언급하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 분, 남, 단, 주격.

17. τά : ὁ의 중성, 복수, 주격과 대격(본질은 대격). (1:1)

18. τῆς : ὁ의 여성, 단, 소유격. (1:1)

19. βασιλείας : βασιλεία(왕국, 왕정, 통치, 국가)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20. τοῦ : ὁ의 단, 소유격. (1:1)

21. θεῶ : θεός(하나님, 신, 우상)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소유격.

4절 : καὶ συναλιζόμενος παρήγγειλεν αὐτοῖς ἀπὸ Ἱεροσολύμων μὴ χωρίζεσθαι, ἀλλὰ περιμένειν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ατρὸς, ἣν ἠκούσατέ μου.

사역 :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들에게 히 에로솔뤼마에서 떠나지 말고,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던 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주) 1. συναλιζόμενος : συναλίζω(σύν+ἀλίζω의 합성동사) (모으다, 같이 먹다, 함께 식사하다, 함께 머물다, 같이 밤을 지새우다, (중) 모이다, 집합하다, 소집하다, 같이 있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분, 남, 단, 주격.

2. παρήγγειλεν : παραγγέλλω(παρά+ἀγγέλλω의 합성동사 및 유음동사) (명령하다, 지시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충고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3. ἀπό(전) (소유격 지배) : (~으로부터, ~때부터, ~에서 멀리, ~에서, ~에게서, ~ 때문에)

4. Ἱεροσολύμων : Ἱεροσόλυμα(예루살렘)의 복, 소유격.

5. μή(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 및 불변사) (직설법 이외의 법에서 쓰임) : (아니)

6. χωρίζεσθαι : χωρίζω((능) 나누다, 분리시키다, 구분하다, (수) 헤어지다, 나누어지다, 물러가다, 떠나가다, 사라지다, 가버리다)라는 동사의 현재, 중(수), 부정사.

7. ἀλλά(접) : (그러나, 도리어, 적어도, 외에도, 확실히, 오히려, ~까지도, 그러면, 자)

8. περιμένειν : περιμένω(περί+μένω의 합성동사 및 비음동사) (기다리다)라는 동사의 현재, 능동, 부정사.

9. τήν : ὁ(관사)의 여성, 단, 대격. (1:1)

10. ἐπαγγελίαν : ἐπαγγελία(예고, 통보, 약속, 서약, 제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11. πατρός : πατήρ(아버지, 조상, 선조)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주격.

12. ἦν : ὅς의 여, 단, 대격. (1:1)

13. ἠκούσατε : ἀκούω(듣다, 들어주다, 들어서 알다, 소식을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복, 2인칭.

14. μου(비강조형) : ἐγώ(인칭, 대) (나, 내가)의 단, 소유격.

5절 : ὅτι Ἰωάννης μὲν ἐβάπτισεν ὕδατι, ὑμεῖς δὲ βαπτισθήσεσθε

ἐν πνεύματι(βαπτισθήσεσθε) ἀγίῳ οὐ μετὰ πολλὰς ταύτας ἡμέρας.

사역 : 이오안네스는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마는 여러분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게 될 것이요.

주) 1. ὅτι : ὅστις(부정, 관계 대)의 중성, 단, 주(대)격 (~누구든지,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ὅτι(접) : (~한 바를, ~하는 것, 곧,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결과표시)).

2. Ἰωάννης(고유,명) : (이오안네스, 요한)의 단수, 주격.

3. ἐβάπτισεν : βαπτίζω(담그다, 적시다, 빠뜨리다, 씻다, 침례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4. ὕδατι : ὕδωρ(물)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중성명사의 단, 여격.

5. δέ(접) : (그러나, 그리고, 도리어, 차라리, 그래서, 그리하여, 즉, 곧, 역시, 또, 이제, 이를테면)

6. ὑμεῖς : σύ(인칭, 대) (너, 당신)의 복, 주격(2인칭).

7. βαπτισθήσεσθε : βαπτίζω의 미래, 수동, 직설, 복, 2인칭. (1:5)

8. πνεύματι : πνεῦμα의 단, 여격. (1:2)

9. ἀγίῳ : ἅγιος의 남(중)의 단, 여격(본절은 중성). (1:2)

10. οὐ(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사) (모임 앞에서 : οὐκ, 강기식 앞에서 : οὐχ로 변함) : (아니, 아니요).

11. πολλὰς : πολὺς의 여, 복, 대격. (1:3)

12. ταύτας : οὗτος(지시, 대) (이, 이것, 이 사람, 이 여자)의 여, 복, 대격.

6절 : Οἱ μὲν οὖν συνελθόντες ἐπὶ ῥώτων(ἡρώτων) αὐτὸν λέγοντες, Κύριε, εἰ ἐν τῷ χρόνῳ τούτῳ ἀποκαθιστάνει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ῷ Ἰσραήλ;

사역 : 이제 함께 모인 저들이 이예수스님을 향해 여러 번 반복 말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때에 회복하시옵니까?

주) 1. οἱ : ὁ(정관사)의 복, 주격. (1:1)

2. οὕτως(접) (후치사) :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면, 따라서, 결국, 이같이, 사실상, 실로, 그러나)

3. συνελθόντες : συνέρχομαι(σύν+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 (같이 가다, 함께 가다, 오다, 모이다, 동반하다, 만나다, 연합하다, 같이 살다)라는 dep동사의 제2과, 능동, 분, 남, 복, 주격.

4. ἐπηρώτων : ἐπερωτάω(ἐπί+ἐρωτάω의 합성동사 및 단축동사) (문다, 질문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물어보다, 심문하다, 갈망하다, 구하다)라는 동사의 미완료, 능동, 직설, 복, 3인칭.

5. λέγοντες : λέγω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1:3)

6. κύριε : κύριος(주님, 주인, 소유자, 주권자)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호격.

7. εἰ(접)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 및 직설법 동사와 함께 쓰임) : (만일, 만일~이라면)

8. τῷ(관) : ὁ의 남성(중성), 단, 여격(본절은 남성)

9. χρόνῳ : χρόνος(시간), 때, 기간, 유예, 지체)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여격.

10. τούτῳ : οὗτος(지시, 대) (이, 이것, 이 사람)의 남성(중성)의 단, 여격(본절은 남성).

11. ἀποκαθιστάνεις : ἀποκαθιστάνω(ἀπό+καθίστημι의 합성동사) (회복하다, 복구하다, 도로주다, 돌려주다)라는 ~μι동사의 현, 능동, 직설, 단, 2인칭(ἀποκαθίστημι).

12. βασιλείαν : βασιλεία의 단, 대격. (1:3)

7절 : Εἶπεν δὲ πρὸς αὐτούς, Οὐκ ὑμῶν ἐστὶν γινῶναι χρόνους ἢ καιροὺς οὓς ὁ πατὴρ ἔθετο ἐν τῇ ἰδίᾳ ἐξουσίᾳ·

사역 :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때와 기한들은 여러분의 알 바가 아니요.

주) 1. εἶπεν : λέγω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3)

2. πρὸς(전) (속격, 여격, 대격 지배함, 그러나 주로 대격을 지배함) ① 속격 : ~에게 유리하다, ~네게 좋게 ② 여격 : 곁에, 옆에, 가까이 ③ 대격 : (장소) 향하여, 에게로, (시간) 가까이, 쯤에, 동안(목적), 위하여, ~할 목적으로, ~하기에, (적대적 관계) 함께, ~와, 향하여, 앞에, (관련성) 관하여, 관해서, 대하여, ~에 관한 한, 따라서, ~에 비하여, ~하기 위하여, ~할 목적으로, ~와 함께)등 다양한 뜻을 나타냄.

3. αὐτούς, αὐτός(인칭, 대) (3인칭) 남, 복, 대격. (1:3)

4. οὐκ : οὐ(부), (아니, 아니요)의 강기식 앞에 놓일 때(모음 앞에서는 οὐκ임). (1:5)

5. ὑμῶν : ἐγώ의 복, 소유격. (1:5)

6. ἐστὶν : εἰμί의 현, 직설, 단, 3인칭. (1:1)

7. γινῶναι : γινώσκω(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느끼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알아보다, 확인하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부정사.

8. χρόνους : χρόνος의 복, 대격. (1:6)

9. ἢ(불변사) : (혹은, 그렇지 않으면) (분리를 나타냄)

10. καιρούς : καιρός(때, 시점, 기간, 시기, 기회, 계절, 한계, 알맞은 때, 정한 때, 절기, 명절)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대격.

11. ἔθετο : τίθημι(두다, 놓다, 뉘우다, 차려놓다, 무릎 꿇다, 대접하다, 예금하다, 예치하다, 저축하다, 베풀다, 버리다, 결심하다, 나타나다, 주다, 세우다, 삼다, 되게 하다, 임명하다 (중) 놓다, 두다, 눕히다, (대격을 위하

여) : 배정하다, 정하다, 세우다, 만들다, 결정하다, 결단하다, 간직하다, ~이 되게하다라는 ~μ동사의 제2과 중간, 직설, 단, 3인칭.

12. τῇ : ὁ의 여, 단, 여격. (1:1)

13. ἰδίᾳ : ἴδιος(자기 자신의, 개인의, 사사로운, 교유한, (부사로 쓰일 경우) : 혼자서)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여, 단, 여격.

14. ἐξουσίᾳ : ἐξουσία(ἐκ+οὐσία의 합성어). (능력, 권력, 권세, 권리, 권위, 힘, 통치권, 직권, 영역, 세력, 보증, 범위, 당국자, 집권자, 정부)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여격.

8절 : ἀλλὰ λήψεσθε(λήμψεσθε) δύναμιν, ἐπελθόν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φ' ὑμᾶς, καὶ ἔσεσθέ μοι(μου) μάρτυρες ἐν τε Ἰερουσαλήμ καὶ ἐν πάσῃ τῇ Ἰουδαίᾳ καὶ Σαμαρείᾳ, καὶ ἕως ἐσχάτου τῆς γῆς.

사역 :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때에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히에루살렘과 이우다িয়া와 사마레이아와 땅의 끝까지 나를 위하여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요.

주) 1. λήψεσθε : λαμβανω(비음동사) (취하다, 가지다, 손에 쥐다, 잡다, 들다, 받다, (검을) 빼다, 데리고 가다, (옷을) 입다, (음식을) 받다, 먹다, (물을) 마시다, 가져가다, 옮기다, 치우다, 차지하다, 얻다, 붙들다, 사로잡다, 떨치다, 이용하다, 속이다, 영수하다, 징수하다, 영접하다, 환영하다, 모시다, 택하다, 뽑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동사의 미래, 중간, 직설, 복, 2인칭.

2. δύναμιν : δύναμις(권능, 능력, 세력, 힘, 역량, 놀라운 일, 기적, 수단, 방편, 군대, 병력, 재물, 부, 자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대격.

3. ἐπελθόντος : ἐπέρχομαι(ἐπί+έρχομαι의 합성동사) (오다, 나타나다, (시간)이르다, 가까이 오다, 다가오다, 닥쳐오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적이) 공격하다, 쳐들어 오다, (성령) 임하다)라는 dep 동사의 제2과, 능동, 분, 남(중), 단, 소유격(본절은 중성).

4. ἐφ' : ἐπί(전) (소유격, 여격, 대격을 지배함) (본절은 대격 지배함) (강기식 앞에서 전치사의 끝모음은 생략되며, π는 φ로 변하고'의 점을 붙임) : (~에, ~위에, ~건너편, 가까이, 가운데, 저쪽으로 ~을 향하여, 대항하여, 대적하여)

5. ὑμᾶς : σύ(인칭, 대)의 복, 대격. (1:5)

6. ἔσεσθε : εἰμί의 미래, 직설, 복, 2인칭. (1:1)

7. μοι : ἐγώ(인칭, 대)의 비 강조형, 단, 여격. (1:4)

8. μάρτυρες : μάρτυς(증인, 목격자, 증거자, 증명자, 순교자)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여) 공성의 복, 주격(본절은 남성명사).

9. πάση : πᾶς의 여, 단 여격. (1:1)

10. ἕως(접) : (~하는 동안, ~때에, ~할 때까지)

11. ἐσχάτου : ἔσχατος(마지막, 최후의, 최종의 (부사로 쓰이면) : 끝으로, 마침내)의 제1, 제2변화 형용사에 속한 남(중), 단, 소유격(본절은 중성).

12. γῆς : γῆ(땅, 밭, 논, 지방, 나라, 고국, 육지, 세계, 주민, 인간, 인류)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소유격.

9절 : καὶ ταῦτα εἰπὼν, βλέπόντων αὐτῶν ἐπήρθη, καὶ νεφέλῃ ὑπέλαβεν αὐτὸν ἀπὸ τῶν ὀφθαλμῶν αὐτῶν.

사역 :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후 저들이 보는 데서 들어 올리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보는 눈앞에서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올라갔습니다.

주) 1. ταῦτα : οὗτος(지시, 대)의 중, 복, 주격과 대격(본절은 대격). (1:3)

2. εἰπών : λέλω의 제2과, 능동, 분, 남, 단, 주격. (1:5)

3. βλέπόντων : βλέπω(보다, 바라보다, 들여다보다, 쳐다보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생각하다, 주목하다, 식별하다, 찾다, 발견하다, 향하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중), 복, 소유격(본절은 남성).

4. αὐτῶν : αὐτός의 남(중), 복, 소유격(본절은 남성). (1:3)

5. ἐπήρθη : ἐπαίρω(유음동사) (들어 올리다, 쳐들다, (수) 들어 올리다, 받들어 올리우다, 자신을 높이다, 으스대다, 젠체하다, 항거하다, 반대하다)라는 동사의 제1과, 수동, 직설, 단, 3인칭.

6. νεφέλη : (구름)의 제1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사의 단, 주격.

7. τῶν : ὁ(관심)의 남(여, 중)의 복, 소유격(본절은 남성). (1:1)

8. ὀφθαλμῶν : ὀφθαλμός(눈(目))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소유격.

9. ὑπέλαβεν : ὑπολαμβάνω(ὑπό+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받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손님으로 영접하다, 대접하다, 부양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응하다, 얻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물러가다)라는 동사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3인칭.

10절 : καὶ ὡς ἀτενίζοντες ἦσα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πορευομένου αὐτοῦ, καὶ ἰδοὺ ἄνδρες δύο παρειστήκεισαν αὐτοῖς ἐν ἐσθῆτι λευκῇ, (ἐσθήρεσι λευκαῖς,)

사역 : 그런데 저들이 이에수스님께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을 때에 자 보시오! 두 사람이 빛나는 흰옷을 입고 저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주) 1. ὡς(관계대명사 ὅς에서 온 관계부사 및 접속사) (~같이, 처럼, 만큼, ~대로, (간접 질문에서) : 어떻게, ~로소, ~한 자로서 (시간적 접) : ~때에, 후에, 뒤에, 동안, ~한, 이상, ~하자마자(결과를 나타내는 접) : 그래서, ~하기 위하여, ~라는 것을, (수사와 함께) : 약, 대략, 거의 (감탄사) : 얼마나!, 어찌면!)

2. ἀτενίζοντες : ἀτενίζω(주목하다, 주시하다, 눈여겨 보다, 유심히 보다)라는 동사의 현, 능동, 분, 남, 복, 주격.

3. ἦσαν : εἰμί의 미완, 직설, 복, 3인칭. (1:1)

4. εἰς(전) (대격 지배함) : (안으로, 속으로, 향하여, ~에게로, ~으로, ~까지, 앞에, 안에, 위하여, 관하여)

5. οὐρανόν : οὐρανός(하늘, 공중, 하늘 세계)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6. πορευομένου : πορεύω = πορεύομαι(가다, 나아가다, 지나가다, 따라가다, 여행하다, 가버리다(완곡 어법으로) : 죽음으로 나아가다, 죽다.)라는 dep 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단, 소유격.

7. αὐτοῦ : αὐτός(인칭, 대, 3인칭)의 남(중)의 단, 소유격(본절은 남성). (1:3)

8. ἰδοῦ(ὄραω의 제2과 중간, 명령법)(간투사로) : (보라, 불지어다, 자, 여기, 저기)

9. ἄνδρες : ἀνήρ(남편, 남자, 신사, 인간)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복, 주격(호격되 됨)

10. δύο : (이, 둘)의 주, 소유, 대격(본절은 주격).

11. παρειστήκεισαν : παρίστημι(παρά+ἕστημι의 합성동사) (옆에 놓다, 맡기다, 받치다, 제공하다, 나타나다)라는 ~μι동사의 과, 완료, 능동, 직설, 복, 3인칭. (1:3)

12. ἐσθῆτι : ἐσθής(의복, 의류, 법복)의 제3변화 명사에 속한 여성명

사의 단, 여격.

13. λευκῇ : λευκος(빛나는, 광채 나는, 흰, 하얀)의 제1, 제2변화 형 용사에 속한 여, 단, 여격.

11절 : οἱ καὶ εἶπον,(εἶπαν,) Ἄνδρες Γαλιλαῖοι, τί ἐσθήκατε ἐμβ λέποντες εἰς τὸν οὐρανόν; οὗτος ὁ Ἰησοῦς ὁ ἀναληφθεὶς(αναλημφ θεὶς) ἅψ' ὑμῶ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όν οὕτως ἐλεύσεται ὃν τρόπον ἐθεά σασθε αὐτὸν πορευόμενο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όν.

사역 : 그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갈릴라이오스 사람들아! 너희는 서서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들어 올리우신) 이 예수스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분을 본 그대로 또 오실 것이다.”

주) 1. οἱ : ὅς의 남, 복, 주격(1:1).

2. εἶπον : λέγω의 제2과, 능동, 직설, 단, 1인칭과 복, 3인칭(본절은 복, 3인칭). (1:3)

3. τί : τίς(의분, 대) (누구, 어느 것, 무엇, 어느 사람, 어떤 사람, 둘 중 누구, 어떤 것, 둘 중 어떤 것, (부) 어찌 어찌하여, (감) 어찌나, 얼마나, 어떻게나, 어찌면, (중성, τί : 왜?)의 중, 단, 주격과 대격. (본절은 대격)

4. ἐσθήκατε : ἵστημι(타) 두다, 놓다, 세우다, 오게 하다, 데려오다, 내 세우다, 제출하다, 굳게하다, 정하다, 고정하다, 확정하다, 확실히 하다, 갚다, 유효케하다. (자) 서다, 서 있다, 멎다, 나타나다, 대항하다, 일어나다, 항거하다라는 ~μι동사의 완료, 능동, 직설, 복, 2인칭.

5. ἐμβλέποντες : ἐμβλέπω(έν+βλέπω의 합성동사) (주목하다, 쳐다보다, 눈여겨보다, 밝히보다)라는 동사의 현, 능, 분, 남, 복, 주격.

6. ἀναληφθεῖς : ἀναλαμβάνω(ἀνά+λαμβάνω의 합성동사)의 제1과, 수동, 분, 남, 단, 주격. (1:2)

7. οὕτως = οὕτω(부) : (이렇게, 이같이, 그렇게, 그같이, 마치 ~같이, 마침내, 그러면)

8. ἐλεύσεται : ἔρομαι(오다, 이르다, 나타나다, 돌아오다, 가다, 닥치다)라는 dep 동사의 미, 중간, 직설, 단, 3인칭.

9. ὄν : ὄς의 남, 단, 대격. (1:1)

10. τρόπον : τρόπος(태도, 모양, 모습, 습관, 풍습, 방식, 방법, 자태, 생활방식, 생활방도, 마음가짐, 행위, 성결, 성미)의 제2변화 명사에 속한 남성명사의 단, 대격.

11. ἐθεάσασθε : θεάομαι(보다, 알다, 깨달다, 찾아보다, 만나보다, 눈여겨보다, 자세히 보다, 뚫어지게 보다, 식별하다)라는 dep 동사의 제1과 중간, 직설, 복, 2인칭.

12. πορευόμενον : πορευομαι라는 dep동사의, 현, 중(수), 분, 남, 단, 대격. (1:10)

【6월호 오탈자 수정합니다.】

쪽	틀린 곳	수정
3쪽9줄	(늦은) (소유격 취할 때는)	(늦은 (소유격 취할 때는)
11쪽13줄	συντέλεια(σύν+τέλιος의 합성어)	συντέλεια(σύν+τέλεως의 합성어)

에베소서 읽기(3)

(은혜와 평화)

손 현 섭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엡 1:2).

1. 들어가기

오늘 공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한 첫 인사말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한다. 바울 사도는 서신의 첫부분과 끝에서 늘 안부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 첫인사는 대부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로 시작한다.

이 인사말은 당시 사람들이 즐겨 쓰던 관용구였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말은 관용구이기 듣기 좋은 인사말이었을 것이다. 오늘은 이 은혜와 평강(평화)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2. 평강과 은혜

1) 평강

평강은 평화, 평안이다. 영어로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다. 히브리의 인사말 ‘샬롬’이 곧 평강이며 평화며 평안이다. 유대인은 이 샬롬을 많이 주고받는다. 지금도 그들의 인사말은 샬롬이다.

우리가 굳이 요세프스의 유대 전쟁사를 읽지 않았어도 성서를 통해서 유대의 역사가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소식을 전하는 나라가 아닌가. 그들의 인사가 샬롬인 데는 의미가 깊다.

인사말은 대체로 그 시대 그 나라의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컸던 한국인의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였든가, 기후가 안 좋은 영국인들의 인사가 “Good morning, Good afternoon”이 된 것도 그런 환경적 영향이라고 한다. 샬롬도 평화를 구하는 유대인의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먼저 조명한 교수의 평강에 대한 서술을 본다.

평화(eirene : 샬롬)가 무엇인가를 교과서적으로 잘 정의한 구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평화)을 누리자”(롬 5:1)일 것이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모든 관계의 안녕(well-being) 또는 화목이 평화이다.¹⁾

그렇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평화는 흔히 말하는 평화와 다른 개념이다. 성서는 그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평강이라 하지 않는다.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안는 것까지가 평강이다. 연합의 의미에 가깝다고 하겠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과의 평강을 빌고 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평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평강”

즉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1) 조명한 저 “에베소서 이해” 34쪽

어 안에 그분이 메시아이며, 메시아를 통해 주시마고 약속하신 그 평강이 왔다는 신앙고백이 담겨있다.

물론 세상도 평강을 이야기한다. 가짜 선지자들도 평화를 말한다.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하지만, 참 평강은 아니다. 거짓 평안이며,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는 다르다. 주의 평강은 무엇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평강을 읽어보자.

요 14:27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눅 12:51-53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싸우게 하려고 왔다. 앞으로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셋이 둘과 싸우고, 둘이 셋과 싸우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싸우리라.

예수가 주시는 평강은 아무 일 없이 지내는 조용한 상태가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 친한 친구가 떠나고, 가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강은 역설적으로 온갖 싸움을 거쳐 누리는 평강이다.

예수 때문에 손해 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무시 받으나, 그 예수 때문에 기쁘니 그리스도인이라서 누리는 평강이다. 이 평강을 불신의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다. 참 평강은 민

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건. ‘intrusion’,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주시는 평강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리는 평강은 아니다.

누가복음 19:37-42을 보자.

예수께서 감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하늘에 평화,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강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성지순례로 실제로 올라간 감람산은 낮은 산이었다. 그래도 저 아래 예루살렘 시내가 훤히 보였다. 그 산 중턱쯤에 눈물교회가 있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성을 내려다보시면서 그들이 평강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던 곳이다.

사람은 노력으로 평강을 얻지 못한다. 어떤 이들은 명상에 들어가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 하나, 역시 평강이다. 왜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듯 평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나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평안이다.

사실 이 세상에는 이미 오래전 평강이 임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노래를 기억해 보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사 9:6)

여기서 말한 ‘땅의 평화’, ‘평강의 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 은혜

평강은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은혜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믿음. 그 믿음 역시 은혜로 받는다.

먼저 조명한 교수의 생각이다.

“은혜는 죄와 사망과 상반되는 구원과 생명의 대명사이다. 그렇다면 구원과 생명을 받는 것과 그것을 전하는 사역이 양자가 은혜라는 점에서 동전 앞뒷면일 수 있겠다. 더군다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라고 한다(갈 1:15-16).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함은 곧 그의 회심을 가리킨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사는, 바울에게 일찍부터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은혜!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무상으로 받는 걸 말한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가 필요한가. 죄 때문이다. 은혜는 죄인에게 온 복음이다. 나 역시 불신의 사람이다. 아니,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 역시 후회 가득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2) 조명한 교수 저 “에베소서 이해” 33-34쪽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목(화해, 평화)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한다. 그렇다. 자신의 추악한 죄를 본 사람이 그 죄를 속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거짓이라 웃는다.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가 될 사람은 아니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를 재판할 때는 옷을 맡아 가지고 있는 등 스데반 처형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다. 그뿐 아니다. 그리스도인을 쫓아가 감옥에 넘기는 직책도 열심히 수행한 자였다.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예수께서 나타났다. 왜 그런 사울을 부르셨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다만 바울의 나중 행적, 즉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생애를 보고 사도에 적합했다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인정한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처럼 열심히 더 열심히 일하고자 했다. 이 수고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고전 15:10).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또 마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는 것뿐 할 일이 없다.³⁾ 어떤 이들은 말한다. 하나님을 위해 내 힘껏

3) 엡 2:2-5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사랑을 인하여 /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일한다고 말이다. 그 선한 의도는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라는 타이틀을 내건 사람들에게 얼마나 속았던가? 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라 생각한다.

내 나이가 되어서 보니 아무리 훌륭하다는 사람도 도토리 키재기라는 인생의 진리를 좀 알 것 같다. 권력가나 재력가나 이름난 성직자들은 아마도 나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이 아닐까 했었다. 그러나 70년을 살면서 보니, 그들도 나도 부족한 죄인일 뿐이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치무라 선생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은 다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다.⁴⁾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 자체이다.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영생을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3 댁으며

젊은 시절 이사를 앞두고 도와주러 오신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자네집 이사를 밤마다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네.”

웃고 말 이야기였지만,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100세가 된 지금도 여전하시다. 이런 어머니를 닮았는지 아내도 매사에 걱정이 많다.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 상상하여 불안해한다. 이런 아내에게 우리 주 예수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고 싶다.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4) 우치무라 간조(양현혜 옮김), 구약록, 포이에마, 2016, 198쪽.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깊은 한밤중 한 아기가 울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며 아기가 울고 있다./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니 그저 울뿐이다.

이사야서 공부

(유배자들의 귀향 I)

[이사야서 11장 10절-16절]

최 정 일

(4)델리취의 해석

1) 10절

① 10절에서는 지금까지 외관상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제한되었던 이 평화로운 통치의 축복과 관련된 의문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제한은 자기목적이 아니고 단지 그 축복의 제한없는 일반화의 수단일 뿐이다. 다윗 왕조의 교만한 나무는 도끼로 베어 눕혀졌고 단지 아직도 그 뿌리만이 남아 있다. 「새 다윗」은 일정한 의미에서 이새의 뿌리 자신이다. 왜냐하면 만일 이 뿌리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지금 그것에서 싹트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것은 오래전에 소멸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이제 이새의 뿌리 안에서 그것의 수액과 그것의 힘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이 봄과 같이 되젊어진 이새의 뿌리 자신으로 되었을 때[계22:16:맺음말-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샅별이다] 그는 이 낮은 시작에서 이방 민족을 끌어들이고 결합시키는 깃발로 높여질 것이다. 온 세상에 보이고 그는 이방 민족들의 주의[注意]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열심히 그에게로 향할 것이고 그의 거한 곳은 즉 그가 살고 왕위에 앉아 정착한 곳은 「영광」 즉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 모든 민족을 자신에게 모이게 하는 왕의 거처이면서 왕좌가 있는 곳이다. [시132:8-14절:주님은 늘 백성과 함께 계심: (8절)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 곳으로 드십시오. (13절)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4절)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서 살겠다].

③ <불가타 라틴어 성서>의 번역[무덤이 영광으로 되었다]은 적절하지 않은데 「거처」(안식처, 메누하토)가 「무덤」이 아닌 것은, 비록 「십자가」가 이 깃발로 되었음에도, 「네스」(깃발, 기치)가 「십자가」가 아닌 것과 같기 때문이다.

④ 또 다른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이 왕이 나온 백성 그리고 이 왕이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하여 있는 백성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자신의 조국에서 아주 멀리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통치할 수 있겠는가?

11-12절)

①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이미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의 두 강대국이었다 [사7:18-20절 ‘그 날’에 일어날 멸망과 구원: (18절) 그 날에 주님께서 휘파람을 불어 이집트의 나일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며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19절)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몰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 모든 가시덤불과 모든 풀밭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20절) 그 날에 주님께서 유프라테스강 건너 저편에서 빌려온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을 시켜서 당신들의 머리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요 또한 수염도 밀어 버리실 것입니다].

② 이집트의 주변 지역으로는 (㉠)「파트로스」(나일 강 상류지역)(미츠라임은 좁은 의미로는 나일 강 상류지역임)와 (㉡)「쿠쉬」(구스:파트로스보다 더 남쪽의 아라비아만 양쪽에 위치한 나라, 에티오피아)가 있다.

③ 아시리아 주변 지역으로는 (㉢)엘람(티그리스 강 동쪽 고원지역)과 (㉣)「쉬나르」(옛 수메르 지역)(예컨대 아시리아 왕들은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으로 불렸음)이 있었고 시리아의 「하맛」은 레바논 북쪽지역을 가리켰고 「바다의 섬들」(우메이예 하얌)은 지중해 연안의 섬들과 해안지역을 가리켰다.

④ 위의 지역들에 소재하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이스라엘의 이산민)는 이사야 예언자 당시(주전 740년-주전 681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

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주전 722년)한 뒤에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는 이사야 예언자 당시의 역사를 말한대기보다도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속량」(구속, 해방)은 두 번째의 바빌론 포수(주전 586년)에서의 귀환을 가리킨다. [사 6:12:이사야의 소명]에는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 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였고 [신 30:1-5:주님께 돌아오다]에는 「(1절)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2절)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3절)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흠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4절)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5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 되고 더 번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있다.

⑤ 이 두 번째의 속량(해방)(바빌론 포수로부터의 귀환)은 출애굽 사건과 상응하는 짝을 이룬다.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시던 그 날과 같이 이제 위의 지역(나라)들에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해방시키실 것이다. 열방(위의 나라들)의 회심은 이스라엘의 해방(속량)의 수단이 된다. 이방 민족들은 야훼의 손짓(눈짓, 암시)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고 호위할 것이다. [사 49:22:기적적인 귀향과 복귀]에는 「내가 못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못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

이니 그들이 네 아들을 안고 오며 네 딸을 업고 올 것이다」라고 있고 [사 62:12:구원의 기쁜 소식]에도 사람들은 그들(그가 구원하고 찾은 백성)을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 부르며 주님께서 해방(속량)하신 백성이라 부를 것이라 하였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과 남왕국 유다의 흩어진 자들, 남자들과 여자들을 다시 세상 사방에서부터 모으실 것이다」라고 있으며, [사 66:22:예루살렘의 구원]에도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태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라 하였다.

(5) 오토 카이저[Otto Kaiser]의 해석[ATD:독일구약성서전집]

1) 10절<민족들을 위한 깃발>

① 「이새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에서 「이새의 뿌리」는 7)메시아를 가리키든지 또는 4)다윗 왕조를 가리킨다. 여기서 「깃발」은 [사18:3 에티오피아에 대한 말씀]에서는 「세상의 모든 주민아 땅에 사는 사람들과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라고 있고 [사 49:22 기적적인 귀향과 복귀]에서는 ‘보라 내가 민족들에게 내 손을 쳐 들고 거래들에게 내 깃발을 올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네 아들을 품에 안아 데려오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하였다. [사 62:10 새 예루살렘]에서는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못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라고 있다.

② 다윗 왕조에게 옛부터 약속한 것이 이제 끝내 성취될 것이다. [시 2:8:주님이 선택하신 왕]에는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라고 있고 [시72:8-11:왕을 위한 기도]에는 「(8절)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유프라테스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9절)적

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 주십시오 (10절) 스페인의 왕들과 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 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11절)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있다.

③ 「휴식처」(그의 거처)는 (가)왕궁(성전을 포함)이거나 또는 (나)예루살렘 도성을 가리킨다. [왕상7:1-12:솔로몬이 궁전을 짓다]에는 「(1절) 솔로몬이 열세 해에 걸쳐 자기 궁전을 짓고 궁전 전체를 마무리했다. (2절) 그는 또 레바논 수풀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폭은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향백나무)기둥을 네 줄로 세우고 그 기둥 위에 다 백향목 서까래를 얹었다. (6절)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7절) 또 판걸을 내리는 왕좌 별실 곧 재판 별실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8절)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에 지었는데 그 건축양식은 다른 건물들의 건축양식과 서로 비슷했다. (9절)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치수를 재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자른 값진 돌들로 지었다. (10절)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을 놓았다. (11절)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재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12절)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세 켤과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켤을 놓아서 쌓았다」라고 있다.

④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72:10:왕을 위한기도]에서는 「타르시스(=스페인)와 섬나라 왕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아라비아)와 스바(=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라고 있고 [시68:29:하나님이 승리하시다]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궁궐을 위하여 왕들이 당신께 조공을 가져오게 하소서」라고 있으며 [사60:9-11:예루살렘이 장차 받을 영광]에는 「(9절)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타르시스, 스페인)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10절)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붙잡히 여기겠다. (11절)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라고 있다.

⑤ 야훼의 지상에서의 대리자인 왕의 도성에 세상의 부가 밀려들 것이다. 이것은 열방이 왕을 의지하고 왕이 [사 2:2-3]에서 약속된 바로 그분임을 열방이 인정한다는 뜻이다. [사 2:2-3:영원한 평화]에는 「(2절)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3절) 수많은 백성이 모여 오면서 말할 것이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있다.

11-12절)<디아스포라의 귀환>

①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귀환할 때 가장 큰 무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디아스포라이다. 그리고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통일왕국때처럼 나라를 통일시킬 것이다. 그리고 야훼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었다가 포수민으로 온 세상에 흩어진 당신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과거에 출애굽 때처럼 다시 한 번 해방 시키실 것이다. [옵19-21절:새 이스라엘]에는 「(19절) 네겔 지방에서 올라

온 내 백성이 예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원지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나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20절)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렙타(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스파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21절)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예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이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있고 [미7:8-12: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에서는 「(8절)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 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9절) 내가 그분께 죄를 지었으니 그분께서 나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권리를 찾아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의 분노를 짊어질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빛 속으로 이끌어주실 것이니 나는 그분의 의로움을 볼 것이다. (10절) 그 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의 진흙(=오물)처럼 짓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1절) 예루살렘 도성아! 네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네 국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12절) 그 때에 네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네 계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로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네 백성이 네 계로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있으며 [스 10:6-11: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다]에서는 「9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8절) 내가 그들을 속량했으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아들이고 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9절)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에 흠어버렸어도 그들은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다가 돌아올 것이다. (10절)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 모아 오겠다.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들도 그들에게 넉넉하지 못할 것이다. (11절)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나 주가 바다 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닥까지 다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은 꺾이고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있다.

② 「속량하다」(=해방하다)의 원래의 뜻은 「돈을 주고 노예를 도로 사는 것」을 뜻한다. [느5:8:느헤미야가 사회의 불의에 개입하다]에는 「나(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 간 유대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탄압자)들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라고 있다. 즉 여기서 느헤미야는 백성의 자녀를 노예로 팔아넘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탄압자의 죄악을 명백히 고발하고 있다. 이제 「속량하다」는 동사의 의미는 더 일반화되어서 「해방하다」로 된다.

③ [호 7:13: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지하다가 벌을 받다]에서 그들은 불행하다. 나에게서 도망쳤으니 그들은 망할 것이다. 나에게 거역했으나 내가 구해주고(건져 주고, 해방시켜 주고) 싶어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한다 하였고, [렘31:11: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에서는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해 주고(구해 주었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라고 있으며 [시44:26:도움을 비는 기도]에서는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구원 · 해방해 주십시오.)」 하였다. [신9:26: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주님께 간청하다]에는 「나(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주 하나님 당신의 그 큰 능력으로 속량해 내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내오신 당신의 소유 이 백성을 파멸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있으며 [느1:4-10: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는 「(4-5절)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8절)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민족들 사이로 흩어 버리겠지만 (9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10절)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구해 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있다.

④ 「이 땅 사방」에 대해서는 [겔 7:2: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왔다][에스겔 예언자의 활동시기:주전593년부터 주전 571년까지]에는 「너 사람아(사람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한다. 끝이 왔다 이 땅 사방에 끝이 왔다」라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아시리아에 의한 포수」에 대하여는 [왕하 17:6: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는 「마침내 북왕국 왕 호세아 제 구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잔(=고산)강 가 하볼과 메디아(=메대)의 여러 성읍들에 이주시켰다」라고 있고 유다인들의 「첫 번째 바빌론 포수」에 대하여는 [왕하 24:15-16]에서는 「(15절)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는 여호야킨(여호야긴)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16절) 바빌론 왕은 또 훌륭한 사람 칠천 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천 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장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라고 있다.

⑤ 유다인들의 「두 번째 바빌론 포수」에 대하여는 [왕하24:20-25:11:시드카야의 유다통치,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성전이 파괴되다]에서는 「(24장 20절 및 25장1절)치드키야(=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

으므로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는 치드키야 통치 제 구년에 전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흠 언덕을 쌓았다. (25장 2절) 이렇게 도성은 치드키야 왕 제 십일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4절) 그 해 넷째 달에 드디어 성벽이 풀리니 이것을 본 왕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빠져나와 아라바(요르단 계곡)쪽으로 도망했다. (5절) 바빌로니아 군대가 치드키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원에서 그를 사로잡았다. (7절) 바빌로니아 왕은 치드키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치드키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청동 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8절) 다섯째 달 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 제 십구년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느부자르아단(=느부사라단) 친위대장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9절)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큰 건물은 불태워 버렸다. (10절)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 버렸다. (11절) 느부자르아단 친위대장은 또 도성 안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밖의 남은 무리를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있고 [대하36:22-23: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칙령(주전538년)]에서는 「(22절) 페르시아 왕 키루스 제 일년이였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했다. (23절) 페르시아 왕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해라」라고 있으며 [느7:6-7: 1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수]주전 536년부터 주전 515년까지 즈룹바벨 하에서 성전 재건 건축 및 봉헌이 이루어짐]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세운 후에 예루

살렘으로 간 제사장으로서 율법(모세오경)을 깊이 연구했고 그의 사명은 페르시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음[주전420년 느헤미아가 통치자로 임명받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쌓음]에서는 「(6절)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7절) 그들은 즈롭바벨과 느헤미아가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고 하였다.

⑥ 이제 이집트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으로 귀환한다는 예언이 전해진다. 이집트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렘42:8-16: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에서는 「(8절) 예레미야가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15절)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곳에서 살려고 내려가면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전쟁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며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있고 [렘44:1-14: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에서는 「(1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므돔과 다바네스(타흐판헤스)와 멤피스와 상(上) 이집트(바드로스, 파트로스)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12절) 유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이집트 땅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한 자들을 내가 없애 버리겠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있다.

⑦ 「바빌론 포수에서의 귀환」에 대하여는 [렘 50:4-20:바빌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에서는 「(4절)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5절)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계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8절) 너희는 바빌로니아(=칼데아인들의 땅)에서 탈출해라 바빌로니아 사

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9절) 이제 내가 큰 민족들의 무리를 일으켜 바빌론을 쳐들어가서 정복하게 하겠다. (18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19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20절)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오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라고 있다.

⑧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는 [사 49:22-25:기적적인 귀향과 복귀]에서는 「(22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못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못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네 아들을 안고 오며 네 딸을 업고 올 것이다. (23절) 왕들과 왕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엎드릴 것이며 네 밭의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 것이다. (25절)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네 자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있다.

⑨ 「예루살렘이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하여는 [사 60:4:예루살렘의 영광]에서는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라고 있고, [사 43:1-7절:구원의 약속]에는 「(1절) 야곱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6절)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7절)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하고 있다.

⑩ 아훼께서 당신 백성의 악한 일로 인하여 당신의 도구인 먼 곳의 민족들에게 당신 백성을 공격할 신호를 하듯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당신 백성을 귀환시켜야 한다는 신호를 하실 것」이다. [사 5:24-26:여섯 가지 재앙의 선포, 주님의 분노, 아시리아인들의 침입]에는 이렇게 있다: 「(24절) 내 백성이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했다. (25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26절)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⑪ 「엘람」의 수도 「수사」에는 페르시아 왕의 왕궁이 있었고 강력한 유다 디아스포라도 있었다. 「엘람」은 페르시아 왕국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주전336년-주전323년 통치]의 손에 들어간 뒤 셀류키오스 왕조[주전312년에 창건]의 안티쿠스3세[셀류키오스 왕조의 전성기임:주전 223년-주전 187년]의 사망 후에는 파르티아의 영토로 된다. 「수사」에 대하여는 [느 1:1:느헤미아가 유다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다]에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아가 한 말이다 이십년 기슬르(키슬레우)월(양력 십일월), 내가 도성 수사(=수산)에 있을 때에」라고 있고 [단8:1-2:다니엘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시를 보다]에는 「(1절)벨사차르(벨사살) 왕의 통치 제 삼년, 나 다니엘은 두 번째로 환상(=환시)을 보았다(2절)환상 속에서 보니 나는 엘람 지방의 수사 성의 올라이(=올래) 강가에 서 있었다」라고 있으며 [더1:2-5: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다]에는 「(2절)크세르크세스(아하수에로) 왕이 수사 왕성에 있는 그의 왕좌에 앉아 있던 때이다(5절)왕은 수사 왕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대궐에서 7일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있다.

⑫「바다의 섬들」은 동(東) 지중해의 동쪽 해안과 북쪽 해안을 포함한 섬 지역을 가리킨다. [사20:6: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멸망]에서는 「그 날이 오면 이 바닷가 주민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 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나?」라고 있고 [사23:2:티로(=두로)와 시돈에 내린 심판]에서는 「바닷가 주민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입을 다물어라 너의 대리인들이 큰 바다를 오가곤 했다」라고 있고 [렘47:4:블레셋]에는 「그 날이 왔다 크레타(=갑돌)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있으며 [겔27:6:두로에 대한 애가]에는 「두로야!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고 키프로스(=키템) 섬에서 가져온 회양목(=젓나무)에 상아를 장식하여 네 갑판을 만들었다」라고 있고 [겔27:15:두로에 대한 애가]에는 「드단(=로단) 사람들도 너(=두로)와 거래한 사람들이다 많은 섬이 너와 무역을 했다 그들은 상아와 흑단을 가져다가 물건 값으로 네게 지불했다」라고 있다. <외경>인 <집회서 47:16:솔로몬>에는 「당신(=솔로몬)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룬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라고 있고 [계16:20: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에는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라고 있다.

C. 총괄·요약

1. 이사야서 11장 10절

(1)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하여는,

1) 역사적 사실의 예언으로 볼 수도 있고(안소근 교수 등),

2) 복음(그리스도)의 선포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루터, 칼빈, 델리취).

(2) 이 절의 후반부, 즉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의 해석문제가 까다롭다. 특히 그의 거처의 의미에 대하여,

①무덤(제롬), ②안식처(루터, 칼빈, 델리취), ③예루살렘(칼빈), ④왕궁 또는 예루살렘 도성(오토 카이저) 등으로 견해가 나뉘는데, 루터, 칼빈 및 델리취의 설(안식처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이사야서 11장 11-12절

이 구절들에서는 「그 날 주님께서 다시 손을 드시어」(주님께서 당신 손을 두 번째로 다시 드시리니)의 의미가 가장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는,

1) ‘첫 번째로 손을 드신 것’은 ‘출애굽 때’이고, ‘두 번째로 손을 드신 것’은 ‘바빌론포수에서의 귀환시’라고 보는 견해(오토 카이저 등 대부분의 해석자들)

2) ‘첫 번째로 손을 드신 것’은 ‘바빌론 포수에서의 귀환’이고, ‘두 번째 손을 드신 것’은 ‘바빌론 포수에서의 귀환 후 아직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을 미래에 다시 한 번 모아들이실 때’를 가리킨다는 견해(에즈라 등)

3) ‘이 귀환’은 ‘비유와 상징’이며, 결국 유다인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의 예루살렘 안에 모일 것이라는 예언으로 보는 견해(루터, 칼빈)

4) ‘다시 손을 드신 것’은 두 번째의 바빌론 포수에서의 귀환을 가리킨다는 견해(델리취)

5) ‘다시 당신의 손을 드신 것’은 아시리아에 포수된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그 후대의 어떤 시대든 그 시대의 귀환을 가리킨다는 견해(안소근 교수)로 나누어진다.

‘실제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측면에서 보면, 델리취설, 오토 등 대다수 해석자의 견해와 안소근 교수설이 다 성립될 수 있지만, ‘신앙적, 영적’ 측면에서 보면, 루터와 칼빈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겸손한 자의 평안

(시편 131편)

한 정 주

(개역한글)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순례자의 노래, 다윗 지음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 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	1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1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습니다. 나 거창한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주께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2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 떤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 떤 아이와 같도다.	2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 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 떤 아이와 같습니다.	2 차라리 내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젖 떨어진 어린 아기, 어머니 품에 안긴 듯이 내 마음 평온합니다.
3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3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희망을 야훼께 두어라.

1. 톨슨성경

이 시에서 다윗은 깊은 겸손과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젖 떤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131:1,2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취해야 할 중요한 것은 안식하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그의 품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안식을 통해서 인간을 잠잠케 하고 당신 자신이 직접 나타나 역사하시므로 영광을 홀로 받으신다.

2. 그랜드 종합주석

시편 분류상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는 본시는 다윗이 지은 것으로 단 세 절로 구성된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 신뢰와 그로 인한 절대 평안이 간결하고도 직설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따라서 본시는 근본 감사 예배 시이면서도 지혜시적 성격이 강하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1, 2절) 본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3절).

실로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항시 불만족스럽고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젖을 떼는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만족감과 평온함을 얻게 되는 법이다(잠15:16, 합3:17-19).

131:2 **내 심령으로 ... 평온케 하기를.** 시인의 심령이 세상적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에 그의 영혼 상태가 평화스럽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내 중심이 젖 떼어 아이와 같도다.** 젖을 떼기 이전의 아이는 항시 그 어머니의 젖을 찾기에 급급하며 불만족하여 보채기를 잘한다. 그러나 젖을 떼어 아이는 더 이상 젖을 찾아 울지 않으며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며 평온함을 가

진다. 그와 같이 시인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세상 욕심으로 인해 항상 불만족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한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시인 자신의 영적인 고요함과 평온함을 본절을 통해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랜드 종합주석 9, 880쪽)

3. 유희세, 131편

1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다윗의 시

야하웨여, 저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저의 눈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큰 것을 바라지 않으며

저의 분수에 맞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2 진실로 저는 저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젖 떼 아기 같이

저의 속에서 제 마음은 젖 떼 아기 같습니다.

3 이스라엘이여, 야하웨를 대망하라,

지금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품에 안긴 젖 떼 아기 같이

이 시는 마치 잠언의 말씀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 그리고 네 눈은 나의 길을 반가워하라”(잠23:26)에 대한 겸손한 응답 같기도 하다.

1절. ‘저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저의 눈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시 18:28에는 “당신은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오만한 눈을 낮추십니다.” 라고 쓰여 있다. ‘너무 큰 것’,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대로 받는 마음이요, 한없는 신뢰의 마음이다.

그러니 만큼 하나님과의 정보교환이, 끊임없는 기도가, 즉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이다.

○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에 대하여 연상되는 성경의 다른 구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 하리로다”(시 101:5).

“만군의 야하웨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自高)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사2:12).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롬12:16).

◎ 자고(自高): 스스로 자기를 높임. 자기를 뽐내는 것.

2절. ‘어머니 품에 안긴 젖 떼 아기 같이.’ 젖 떼 아기에게는 가라앉음과 잠잠함의 밑에 어머니 품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다. 예수께서 칭찬하신 아이 “아멘 내가 말한다. 만약 너희가 돌이켜 이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마 18:3,4)라는 아이는 바로 이 시인이 말하는 젖 떼 아기일 것이다.

3절. ‘이스라엘이여, 야하웨를 대망하라.’ 1, 2절에서 이 시인이 개인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나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망할 것을 권고한다. 조국이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시는 제목은 다윗의 시와 순례자의 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 포로 살이 또는 그 이후의 정치상황이 배후에 있지 않을까? 시인은 자신의 구도의 역정을 반성하면서, 과거의 고난과 현재의 평안을 대조하면서, 지금 시련

의 도중에 있는 조국과 동포에게 그 구원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림
할 것을 희구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모든 것을 맡긴다.

(시편, 유희세 지음, 성경말씀사, 487-489쪽)

4. 석진우, 131편 낮은 마음

이 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이다. 이 신뢰의 시는 해맑은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에게 친숙한 마음을 주는 시이고, 시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시에 속한다.

이제 이 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의 성취만을 기도하는 신뢰의 요소만이 전면에 나오고 있다. 더욱이 거창한 것을, 시인이 미치지 못하는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들은 이 시인이 지난날에는 하나님께 강렬한 요구를 했었으며, 이제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모든 요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는 모든 이정보다도 높은 평안이라는 승리를 얻은 것이다. 시인은 현재의 영혼의 평안한 상태를 비유로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심히 울면서 어머니의 가슴을 찾는 젖먹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품속에 평안히 안기는 젖 떼 아이 같이, 그저 어머니와 함께 있다는 것에 평안과 행복을 찾듯이,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중에 행복을 찾아낸다.

3절은 원래 개인의 신뢰의 노래였던 1, 2절에, 이 노래가 교단(敎團)에서 예배문으로 쓰이게 된 후 추가된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예배문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대망하라는 예배문의 정식적(正式的)인 말씀으로 이 시를 맺고 있다. (시편 노트 하<下>, 석진우 엮어 지음, 도서출판 성실문화, 291-293쪽)

5. 칼빈,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의지하라

일이 잘 되며 좋은 결과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복만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를 우러러 보며 주의 지도를 받아, 주께서 정하신 우리의 처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뿐이다.

다윗의 태도가 이러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며 자기를 하나님의 인도에 일임하면서 자기는 젖 떤 아이가 어미의 품에 안긴 듯하며,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고 증거 하였다(시131:1-2).

(기독교강요 中<중>, 존 칼빈 지음, 생명의 말씀사, 212-213쪽)

6. 맺으며

시편 131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겸손한 자세를 다시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절의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에서 특히 서술어 ‘버렸다’와 ‘돌아섰다’의 표준새번역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이를 영어 성경 GOOD NEWS BIBLE 에서는 동사 have given up(버렸다)과 turned away(돌아섰다)로 번역하여,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진한 울림을 안겨 주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 준다,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곧 내 마음이 나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은 자기의 주제파악을 잘 하는 고백을 한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표준새번역)

그러나 사람의 욕심과 탐욕에는 끝이 없다. 하나를 갖게 되면 열 개를 가지려 하고, 열 개를 얻게 되면 백 개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람

들은 거기에서 오는 우울함과 공허함, 불만족과 불평 가운데에 생활한다. 그러나 신앙인은 달라야 한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매일 매일 기쁘게 감사하며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한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5장 16-18절, 표준새번역)

2절의 **젖뎌 아이**는 2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듯하다. 배고파서 칭얼대다가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난 후에 흡족한 표정으로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젖먹이 아이. 또는 젖먹이가 자라서 젖을 먹지 않게 된 이유(離乳)기의 아이. 젖을 뎌 이유기의 아이도 식사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보채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먹을 것을 준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끼니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는 식사를 기다린다.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2절 앞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나는 전자의 해석이 더 공감이 간다.

이 시의 주제는 겸손한 자의 평안이다. 신앙인들은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돌아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

여호사밧왕과 아하시아왕

조 규 철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 야훼를 노래할 성가대를 거룩한 예복을 입혀 군대 앞에 세워 내보냈다. 성가대원들은 "야훼께 감사하여라.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하고 노래를 불렀다. 대하 20:21 (공동번역)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은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아람왕 벤하닷의 목숨은 아합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벤하닷과 평화조약을 맺고 살려서 아람으로 돌려보내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해, 또는 그 이듬해에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왕과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즉 자기의 딸 아달라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켜 서로 사돈지간이 됩니다.

아람의 벤하닷은 길르앗 라못을 아합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평화조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남쪽의 여호사밧왕에게 길르앗 라못을 함께 가서 회복하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남북 연합군은 아람에게 패전하고 여호사밧왕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합왕은 전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 받았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궁으로 무사히 돌아왔을때에 선지자 예후가 왕에게 나가서 책망의 말도 하고 격려의 말도 합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불의한 자를 도우시다니요!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이 일로 해서 임금께서는 야훼의 진노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 하신 좋은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임금께서는 전국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쓸어버리셨으며 또한 결심하시고 야훼만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

전쟁에서 지고 왔으니 민심이 흥흥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몇 가지 개혁 작업을 합니다. 예후 선지자의 격려 사항을 더 잘 실천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1.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전국 구석구석 민정을 살피러 다녔으며, 백성들을 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2. 온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에 재판관들을 임명하여 세운 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지침을 내립니다.

3. 종교적인 모든 문제는 아마라 대제사장이, 왕과 관련한 행정적인 모든 문제는 유다 지파의 스바다가 최종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4. 레위 사람들은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게 합니다.

이민족의 반역

여호사밧이 전쟁에 져서 세력이 약해진 것을 틈타, 인접한 이민족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여 왔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산의 거민(에돔)이 그들인데 이들이 연합하여 엔게디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사밧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중앙부의 서쪽 인근에 있는 성읍인데 적의 연합군은 사해 아래쪽을 돌아서 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여호사밧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성전 뜰 앞에 모인 온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회중 가운데에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주의 영이 내리셔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을 보아라.”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주를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습니다. 먼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 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죽이고 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죽였다고 합니다. 적군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졌습니다.

여기서 복병의 정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유다 백성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은 싸운 것이 없이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들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는 데에 사흘이나 걸렸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사람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브라가’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 붙여진 지명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와도 계속하여 동맹을 유지하였습니다. (아하시아는 며느리인 아달라의 오빠) 두 왕은 무역을 활

성시키려고 함께 상선을 만들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조선소는 예시온게벨에 있었는데 배가 부서져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아와 아하시야 왕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뱌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에 있는 한 성읍이고, 바알세뱌는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때에 엘리아가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뱌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으니 그들은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가 엘리아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왕은 엘리아를 불러오도록 지시하는데, 모셔 오라는 것인지, 체포하여 오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받은 오십 부장은 부하 십 명을 데리고 엘리아가 있는 산으로 갑니다. 그 오십 부장은 엘리아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명ियो.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말투가 거만하고 고압적입니다. 이 말을 보면 체포하여 데리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엘리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십 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오십 부장에게 부하 십 명을 팔려서 엘리아에게 보냈으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왕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혹시 부당한 지시였을 경우, 곧이곧대로 이행한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오십 부장에게 부하 십 명을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 세 번째 오십 부장은 올라가서, 이전의 두 명의 오십 부장과는 달리,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십 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오십 부장 두 명과 그들의 부하 백 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갑니다. 세 번째 오십 부장의 겸손한 요청이 그와 그의 부하 오십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처음에 사절단에게 한 말과 똑같이 말해 줍니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아하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여호람, 남유다 여호람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요람으로 표기)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때는 유다 왕 여호사밧왕 제18년(왕하3:1), 또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 이년(왕하1:17).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호사밧왕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출전할 때에 아들 여호람을 왕위에 올려놓고(섭정왕, 공동왕위) 출전한 때문입니다. 뒤의 기록은 여호람이 섭정왕 시작부터의 기록입니다. 여호람은 섭정왕을 8년 하고서 여호사밧왕이 죽자 정식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남과 북은 같은 이름의 왕이 동시에 통치하게 되는데, 혼동을 막기 위해서 북쪽 왕을 보통 요람이라고 부릅니다. 악녀 이세벨의 둘째 아들은 북쪽의 왕이고, 딸은 남쪽의 왕비가 된 시절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제81강 므나의 비유 (19:11-27)

矢内原忠雄 (권태주 역)

1

예수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고,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당시 유대인 사이에 퍼져있던 말에 따르면, 메시아(즉 그리스도)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성도를 갈릴리로 모으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도성으로 올라가고 있던 군중은 지금이야 말로 그 때가 왔다고 하 군중심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 위의 죽음이지 왕위가 아닌 것을 예수는 누구보다도 잘, 아니 예수만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 예수는 군중의 공상적,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바로잡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것이 “므나의 비유”이다(19:12-27).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됄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19:12, 14, 15)

이 비유는 헤롯 대왕의 사후, 그 아들 아켈라오(1)가 황제 아우구스도에게 유다와 이두미아의 왕권을 받기를 바라서 로마에 간 것. 유대인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뒤에서 60인의 사절을 로마에 파견하여 오히려 로마

황제의 직할령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청원한 것. 그러나 아켈라오는 왕권을 받는 데 성공하여 유대에 돌아왔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추측된다. 예수의 비유가 모두 생생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은 모두 자연계, 인간의 생활 혹은 역사상의 사실을 그 자료로 썼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비유는 훌륭한 문학적 작품이다.

(1) 아켈라오의 이름은 마태2:22에 나와 있다. 예수의 부모가 애굽에서 유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갈릴리로 물러가서 살았다. 아켈라오는 기원 6년에 실각해서 추방되고 유배지에서 죽었다. 유대는 로마 황제의 직할령이 되고 세례 요한이 출현한 당시에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다(누가3:1참조).

2

이 귀인이 먼 나라에 갈 때, 열 사람의 종을 불러 이들 각각에게 한 므나씩 주며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말했다(19:13).

므나는 그리스 화폐 단위로 100드라크마가 1므나, 60므나가 1달란트였다. 장사하라는 것은 상품을 매매하는 영리행위이다. 10명중 어떤 사람은 1므나의 자본으로 10므나의 이윤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므나의 이윤을 남겼다. 이 둘은 자본을 잘 활용했으므로 “잘 하였다 착한 종이며”하는 칭찬을 왕에게 받았다(19:16-19).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소극적이었다. 만일 장사에 실패해서 자본을 잃기라도 하면 엄한 주인에게 어떤 꾸중을 들을지 몰라 그 한 므나를 수건으로 싸 두었다. 그 경제관념이 없는 것에 왕은 노하였다. 차라리 은행에 예금해 두었으면 이자의 수입이라도 생기지 않느냐고 질책했다(19:20-23).

여기에 은”이라고 번역한 원어는 환전상이 화폐를 올려놓는 상(카운터)을 말한다. 예수가 “성전확청”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둘러앉으신 “환전하는 자의 상”이 이것이다. 당시 화폐를 거래하는 환전상은 은행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이 비유로 알 수 있다.

왕이 옆에 서 있는 자에게 명한다.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열므나 가진 종이 “저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대답하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데(19:24-26), 이것 또한 자본을 활용하는 상도의 상식이다. 다만 돈을 소유하는 것 즉 돈의 분배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미 10므나를 가진 자에게 1므나 밖에 못 가진 자의 돈을 빼앗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점에서는 1므나를 사장시키는 게 전혀 무의미하다. 차라리 그것을 빼앗아 경제활동이 활발한 사람의 자본에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

로마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르지만 어느 정도의 화폐경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이윤, 이자 등의 개념이 있었던 것을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다. 즉 예수계신 당시의 경제 현실을 소재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또 황제에게 왕권을 받는 로마제국의 봉건적 통치형식, 또 주인에게 자금을 받아서 장사하는 자본주의적인 경제방식도 엿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흥미 있는 사회사적 자료가 된다.

3

이 비유의 의미는 어렵지 않다.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라는 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 심판하는 권리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사건이다.

그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각각 “1므나”를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셨다. 므나는 신앙, 또는 신앙을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해석한다. 장사는 실천이며, 넓은 의미로는 전도를 뜻한다. 예수가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 신앙을 사장하지 않고 생활에서 활용해야 한다. 신앙을 증거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많이 활용한 자는 예수가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많은 마을을 다스릴 지위와 권능을 받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상은 크다. 이에 반해서 신앙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해두고 있는 자는 아무런 이윤도 이자도 남기지 못하고 그 주어진 신앙조차 살아진다. 신앙은

쓰면 쓸수록 힘이 더 세어지지마는 쓰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린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나라”(10:10)하고 말한 바와 같다.

예수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가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선고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실을 예수는 이 비유로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19:27). 고 말씀하신다(또 묵시록20:15참조).

이처럼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그때까지의 사이에 지상에 사는 자의 신앙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엄한 훈계를 주신 것으로 해석된다.

4

이 “므나의 비유”와 흡사한 비유가 마태복음에 있다. 그것은 “달란트의 비유”(마태25:14-30)로 불리는 것인데 “므나의 비유”에서는 열 사람의 종이 각각 1므나씩 균등하게 받아 일한 결과에서 차등을 보이는 것에 반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각인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이처럼 중요한 차이가 있는 이상 양자는 같은 비유의 다른 전승이 아니고 각기 다른 기회에 말한 개별의 비유라고 보는 것이 학자의 통설이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사람에게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다룰 수 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신앙적 활동으로 다섯 사람의 신자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을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서 다섯 책의 저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두 통의 편지만을 남긴다. 그러나 5달란트를 번 자도 2달란트를 번 자도 똑같이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

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태25:21, 23). 와 똑같은 말로 주인의 칭찬을 받아 보상에서 차등이 없다. 능력의 차이는 활동량의 차이를 가져오지마는 보상의 차이는 없다. 큰 능력을 받은 자도 작은 능력을 받은 자도 각각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복음을 위해서 증거한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환희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사람이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므나의 비유”에서는 받은 것은 똑같이 1므나이지마는 이것을 활용한 결과에 양적 차등이 생기고 그에 대한 보상도 또 차등이 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니고 신앙 그 자체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 크고 작음이 없다. 시골의 농사짓는 부인의 신앙도 베드로나 요한의 신앙도 같다. 다만 사람의 능력이나 경우에 따라서 활동의 범위나 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얻는 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이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환희에 들어가지만 10므나를 번 자에게는 10고을, 5므나를 번 자에게는 5고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밑에 어떤 자는 10고을을, 다른 사람에게는 5고을을 하는 식으로 봉건적 계급정치가 시행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쇼군 휘하에 몇 만석 몇 천석의 다이묘나 무사가 각각의 영지를 다스린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신앙의 능력이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점점 더 신앙의 힘을 크게 발휘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이처럼 달란트의 비유와 므나의 비유는 서로 보충해서 신앙의 활용과 그에 대한 천국에서의 보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었다.

5

다음으로 맡겨진 1므나를 수건에 싸서 사장한 종의 변명을 들어보자. 말한 다, 이는 당신이 얕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 나이다(19:21).

헤롯 대왕이나 그의 아들 아겔라오에 이처럼 가렴주구를 일삼는 폭군적 성격이 있었다고 하나 그것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오착이었다.

예수에게서 신앙을 받은 자가 그 신앙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소극적 퇴영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있다. 그 때 그가 마음속에 품은 변명은 대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기의 신앙은 작은 것이라고 하는 비하. 또 하나는 잘못하면 큰 일이라고 하는 공포인데 어느 것이든 거짓 겸손 혹은 잘못된 겸손으로서 예수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정말 자기의 신앙은 작다. 그러나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는 말처럼 작은 자는 작은 대로 솔직히 또 마음 가득히 그 주어진 신앙의 양에 따라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고 이것을 수건에 싸서 혹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11:33참조). 더욱이 “므나의 비유”에서는 열 사람의 종에게 각각 1므나를 주었으므로 인물의 능력이나 기량의 대소에 불구하고 주어진 신앙은 같은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만은 열 사람의 종 모두에게 공통이고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마저도 사람 앞에서 입으로 말하지 못해서는 그 있는 신앙조차 살아진다.

자기가 선의로 한 신앙상의 행위가 자기의 사려부족이나 혹은 신앙의 불명확성 때문에 만일 잘못되면 하는 공포심으로 소극적 퇴영적 태도로 나오는 자는 신앙의 본질을 전연 오해하고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라 신앙으로 된다”고 하는 원리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리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요한1서4:18)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다. 만일 그것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 후처리를 선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실패조차 이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옴한 폭군으로 생각해서 그 죄를 받지 않으려고 소극적 퇴영적 태도를 일관하는 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따라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있는 것이다.

6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나타나기 전에 예수는 한번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여 승천하고 재림해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다.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음의 일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실현될 것이라 생각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다가올 옴한 현실--예수의 체포, 심문, 처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세계를 심판하실 때 이 세상에서 그를 따르는 자와 그를 반대하는 자에 대한 상별이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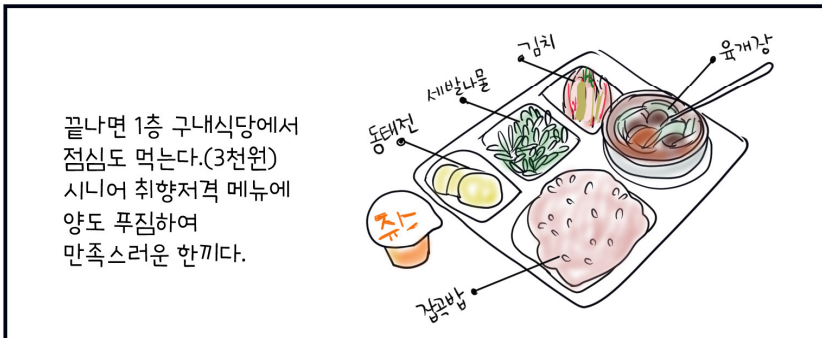
(3)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이 맨손으로 게을러서는 안 되고 또 겁먹고 퇴영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복음전도를 위해서 주어진 신앙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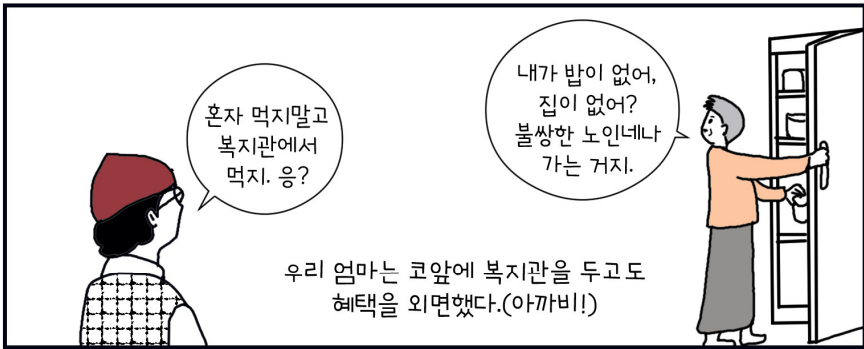
이 “므나의 비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 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주는 격려임과 동시에 훈계이다. 예수는 지금 그의 죽음을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길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곧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직면해야 할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준비시키셨다.

만화로 보는 한 줄 성경

메나리

<슬기로운 노년생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36:25)

구원

Turn Turn Turn (돌고 돌고 돈다)

노래 The BYRDS

최 제 현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and a time to every purpose
under the heaven: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 time to reap that
which is planted:
A time to kill,
and a time to heal
a time to break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time to weep,
and a time to laugh
a time to mourn,
and a time to dance
A time to cast away stones,
and a time to gather stones together
A time to embrace,
and a time to refrain from embracing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뺏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A time to gain that which is to get, and a time to lose a time to keep, and a time to cast away; A time to rend, and a time to sew a time to keep silence, and a time to speak A time of love, and a time of hate a time of war, and a time of peace.	찾아서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꿴매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미국의 포크송 가수이자 사회운동가인 피트 시거(Pete Seeger)가 1959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작곡은 피트 시거가 했고, 가사는 솔로몬 벤 다윗(Sholomon Ben Dadid)의 글입니다. 처음 피트 시거가 발표했을 때는 큰 인기를 얻지 못하다가 1965년에 미국의 포크록 그룹인 버즈(Byrds)가 불러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으며, 1965년12월4일에는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고 캐나다 차트에서는 3위, 영국에서는 26위에 올랐습니다.	

노래 제목 “Turn Turn Turn”은 “돌고 돌고 돈다”는 단순하고 쉬운 가사이지만 모든 것이 변하고 각기 때가 있다는 인생사의 이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양철학의 영향을 받은 노래 가사로 치부되기 쉬운데, 사실은 전도서 3장 1~8절의 내용을 가사로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이 노래의 저작권은 작곡 50%, 작사 50%로 되어있는데, 저작권자인 피트 시거(Pete Seeger)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옮겨 쓴 가사로 발생

한 50%의 불로소득 분 중 90%에 해당하는 45%를 팔레스타인 주택철거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주택 철거 반대 위원회” ISCAHD(Israeli Committee Against House Demolitions)에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5%? 나도 궁금합니다. 덕분에 나 역시 가사를 소개하는 노력 없이 성경에서 글자 그대로 옮겨 넣었습니다. 당초 이 노래를 피트 시거가 발표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버즈(Byrds)가 발표하여 1965년 빌보드 핫1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는데, 맑은 음색을 가진 메리 홉킨스의 노래도가 참 좋습니다.

전도서가 솔로몬이 직접 저술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솔로몬의 통찰이 잘 녹아 있으며 삶의 덧없음에 대하여 솔직한 고백을 많이 담고 있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여백을 느끼게 하는 감칠맛 나는 저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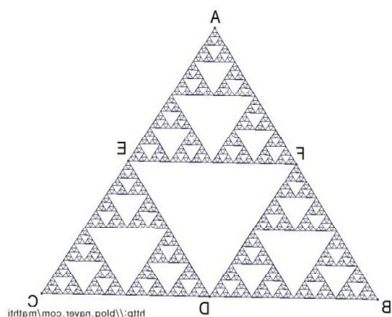
BC1046, 주나라를 세운 문왕은 천지의 변화를 관찰하고 그 법칙을 체계화하여, 태극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양과 음이 서로 순환하면서 만물이 생성, 발전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64괘 효의 주역(周易)을 편찬하였는데, 이 사상은 명리학의 기초요소이기도 하며 유교, 도교, 불교 등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고교 때, 삼국지에 흠뻑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 서두에는 “천지의 이치란 합하면 반드시 흠어지고, 흠어지면 반드시 합하여지는 것. 만물의 태어남은 반드시 먼저 합하면서 태어나고, 합하면 반드시 흠어지고, 흠어지면 반드시 합하여 지니, 천하의 형세는 이와 같은 것” (天地之道 合必有離 離必有合 萬物之生 必先有合 合必有離 離必有合 此之謂天下形勢)이라는 권두시로 시작하는데, 권력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데는 이보다 나은 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원래 주역의 “계사” 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 문장의 제목을 영어로 붙인다면 바로 “Turn, turn, turn!”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자는 “도(道)”는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이며, 도는 항상 순환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동양철학은 “순환”을 만물의 원리로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로 여기는데, 중국의 대표적인 도교 철학자인 장자의 “제물론”에서도 “달도 차면 기울고, 저문 달은 다시 차오른다 (月滿則虧 虧則又滿)”고 모든 사물의 순환을 설파하였고, 이 말을 솔로몬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달도 찰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으며”일 것입니다. 이렇듯 “turn, turn, turn”과 동양의 “순환 사상”은 정말 많이 닮아 있는 듯 보입니다.

순환(循環)은 동양사상의 핵심이며, 내가 초보 신앙인이었을 때는 이 순환 사상을 신봉하며 “어두움 끝에는 새벽이 오니 밑바닥일 수록 희망을 가지며, 좋을 때는 반드시 내려갈 것을 경계하고 대비”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단순한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복잡한 전체구조를 이루는 구조를 프랙탈 (Fractal)이라고 하며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을 하는 “자기 닮음구조”를 말하는데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성”과 “무한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기상, 금융, 지질, 생물, 컴퓨터 그래픽, 뇌 과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프랙탈 구조를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랙탈의 특성을 가장 간단히 표현한 시어핀스키 삼각형인데 조그만 것도 큰 것도 전체 모양도 모두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형태에서 프랙탈 구조가 눈에 띕니다.

울 때-웃을 때, 날 때-죽을 때, 전쟁-평화가 모두 같은 궤적으로 순환하며 어울려져 있으며, 우리의 세상은 쥐새끼 한 마리의 생로병사와 우주

의 명멸이 유사하여 작든 크든 모두 무한히 이어지는 공통적 특성을 갖는데 이것도 프랙탈(자기 닮음)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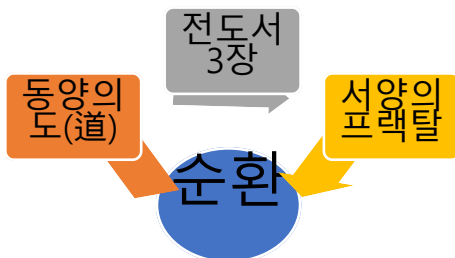
이렇게 보면 3천 년 넘은 동양의 순환사상과 서양의 과학(프랙탈)이 유사하고 전도서 3:1-8의 사상도 이와 유사합니다.

이 프랙탈 이론은 우주 전체의 유기적인 전체성을 수학으로 설명하는 과학이론이지만,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나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동양의 태극원리나 도(道)사상 역시 그렇습니다. 원래 “스스로 그런 것(自然)”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BC300경 중국에 한 명의 걸출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꿈에 내가 나비가 되어 노닐었는데, 꿈을 깨어보니 내가 나비로 변한 꿈을 꾸었는지, 나비의 꿈속에 지금 나(莊子)로 변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꿈속의 나비와 현실의 장자라는 존재가 서로 다를 바 없었다”며 인간이라는 껍질이 아닌 자신의 본질에 대한 화두를 던졌는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인간이 되었다면 나는 인간인 것이 맞겠지만, 어쩌다 태어나보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더라. 그런데 꿈에 나비가 되어보니 나는 원래 나비였던 것 같더라. 그러면 인간이라는 껍질을 벗은 진짜 나는 무엇이나 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마음이 영혼과 다른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는데, 생각(논리)과 마음(감정)은 인간에 속하여 두뇌활동이 담당하고 있지만, 장자가 말하는 “인간의 껍질, 즉 육체를 벗은 자신의 본질”은 바로 천사든 악마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자는 제물론에서 “남쪽 바다 섬나라에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북쪽 바다 숲에서 나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말을 했



답니다. 즉 나비와 내가 하나일 수 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장자는 기존 이론에서 다루지 않던 인간의 본질과 변화의 근본 원인을 추구함에 이렇게 놀라운 직관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자로부터 이천삼백 년 후, 서양에는 카오스(Chaos)이론, 즉 혼돈(混沌)이론이 등장합니다.

이 카오스이론은 프랙탈 이론과 한 쌍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프랙탈은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쓰이고, 카오스이론은 “시스템의 동작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사용됩니다.

혼돈이론은 “혼돈 속에도 질서가 있지만, 사소한 변수가 미래에 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먼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세계의 이상기후를 설명하는 데도 사용되는데, 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작은 변수들이 움직인 결과, 즉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 같은 작은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장자의 나비론을 자주 인용합니다.

동양의 태극 사상과 서양의 프랙탈(자기 닮음) 이론은 “모든 것이 돌고 돈다”고 순환을 강조하고, 장자의 나비론과 서양의 혼돈(Chaos)이론은 “수많은 움직임 중, 어떤 움직임이 어떤 일의 원인이 될지 알 수 없기에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다”며 동서양은 그 이론의 한계를 함께 고백합니다.

전도서 3:1-8과 동서양 이론은 “순환”이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라는 주장에 일치하였고, 무엇이 미래를 바꾸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현대이론까지 동서양의 지성이 일치한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이론들의 한계 때문인지 우리는 어딘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왠지 허무한 느낌도 듭니다.

달도 차면 기우는 순환의 교훈을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최고의 지혜라고 믿었지만, 이 순환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인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추구할 진리가 순환인지요? 기다리던 좋은 시절이 어렵게 와도 또다

시 내려갈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마음 놓고 편안히 웃어 볼 날은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 어딘지 불안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인생 중 똑같은 하나로써 순환의 굴레를 벗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노여움을 산 시지프(Sisyphé)는 바위를 산 정상에 올려놔야만 하지만, 겨우 올려 놓았다 싶으면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위를 다시 굴러 올려야 하는 이 지긋지긋한 형벌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무한한 반복의 굴레”가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 달이 차면 기운다는(月滿則虧) 동양사상이고 서양의 프랙탈 이론이며 또한 전도서 3장 1:8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없을 수 없으나, 과연 동서고금의 현자들이 인정한 순환에서 벗어나 평생을 사랑과 희망을 속에서 살 수는 있는 것일까요?

이 광활한 오대양 육대주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망해갔지만,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지도 않으며 이미 지나간 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약 이천 년 전, 머나먼 중동의 어느 구석진 땅에서 한 평민의 아들이 몇몇 제자와 수천의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자기 민족에게 배척받고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국의 몰락도 아니었으며 그에게는 소크라테스처럼 힘 있는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널린 우수마발(牛搜馬勃: 소 오줌과 말똥)처럼 흔하고 별 볼 일 없이 그저 그런, 변방 오지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민속소요 사건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처형을 당하며 그의 가르침은 흘러간 물처럼 물레방아를 더 이상 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나비 중 한 마리의 날개짓 같던 이 젊은 예수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순환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으며 수많은 “나비”들의 기쁨과 희생을 이끌며 멈추지 않는 태풍이 되어 이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길래 크든 작든 똑같은 인생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게 하였으며 알 수 없는 혼돈의 미래 속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달이 차면 기울고 기운 달은 다시 차는 순환의 원리에 운명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더 많이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마 13:12)”라는 말씀으로 “있으면 없게 되고, 없으면 있게 된다(合必有離 離必有合)”는 일률적인 “순환”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삶의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인간은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으며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살더라도 우리의 중심을 영원한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선택만 있을 뿐, 운명의 순환은 없습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혼돈(Chaos)의 세상에 대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마 6:19)”고 말씀하시며 “오직 너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며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20)”며 확실한 ORDER(질서, 규칙)를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인간에게 한정된 물질적 세계관에서 다차원의 영적 세계관으로의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물질세계의 “운명의 순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일 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운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물질 세상은 허무한 것이니 하나님을 만나 함께해야만 참 인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글을 썼던 것이나,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니, 목적지는 알라도 가는 길을 가르칠 수 없었던 솔로몬의 푸념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로 인하여 솔로몬도 푸념하던 “순환의 허무함”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굴레가 되지 않으며, 그 새로운 길은 운명의 순환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하지 않은 순환으로부터의 해방은 곧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이제 행복의 정점에서 꺾어질 운세를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심에 오직 “말씀”만이 있는 이들에게 운명의 순환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할 뿐이며, 하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가며 느끼는 행복은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커져 갑니다.

이 행복한 길은 평생을 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가는 한, 어제보다 큰 행복은 있어도 행복의 정점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순환이란 굴레를 벗어난 자유롭고 행복한 나비(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이런 일 저런 일

【김교신 평전 출간】

1. 김교신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오랜 시간 준비한 <김교신 평전: 세속성자, 일상에서 영원을 일구다> 가 최근 출판되었습니다.

기존 김교신 관련 서적과 확실한 차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합니다.

2. 교보문고 등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책을 중심으로 <강연>이나 <북토크>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연락처 : 전인수 교수 010-2290-7857)

【韓國無敎會双書 완간】

일본의 모리야마 코지(森山 浩二) 선생이 수년에 걸쳐 한국무교회의 두 분, 김교신 선생과 송두용 선생을 일본에 소개하는 전 10권의 책을 출간 하였습니다. 도중에 출판사가 바뀌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난 3월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류문고에도 그때 부쳐주셨으나 배송사고가 있어, 6월말 서울에 오실 때 직접 가져와서 다시 기증해주셨습니다. 귀한 책이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國無敎會双書 (전9권, 별권1)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2권 김교신 : 신앙과 인생 상·하

제 3권 김교신 : 산상의 수훈

제 4-7권 김교신 : 일기 1930-1941년

제 8-9권 송두용 신앙문집 상·하

별권 김교신-일본통치하의 조선인 그리스도교 신자의 생애

【 오류문고 안내 】

오류 문고는 기독교 신앙 서적 3,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무교회 관련 서적을 거의 모두 찾아볼 수 있는, 작지만 알찬 도서관입니다. 구로구청의 작은 도서관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민간 도서관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 연락처 : 왕정숙 010-8151-1930

☆ 오류문고 인터넷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oryubooks>

【 오류동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오류문고

(오류역 1번출구 도보 5분)

연락처 : 조규철 010-2228-8200

【 부산 성서모임 안내 】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부산시 기장군

연락처 : 손현섭 010-2060-5534



오류문고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8길 75
상가205호(오류동, 삼천리④)

성서신애사 연락처 : 손현섭

☆ 010-2060-5534

☆ sonhs0105@hanmail.net

월간 성서신애 제514호 2024년 7월

인	쇄	2024년	7월	1일	
발	행	인	손	현	섭
편	집	인	손	현	섭
인	쇄	인	김	진	열
발	행	소	성	서	신 애 사
우	46050	부산	기장군	철마면	중리2길 14-7
인	쇄	소	신	우	디 엔 피